



故유동룡 선생

경북 경주엑스포공원에 자리 잡은 경주타워. /연합뉴스

# “공공기관 지재권 침해 첫 사과 경주타워 세계적 명소 만들 것”

### 이철우 경북도지사 현판식서 소회 지적재산권 이해 부족 반성 유족에게 진정성 담아 현판식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 경주엑스포에서 열린 경주타워 현판식에서 고(故) 유동룡 선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경주가 문화예술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화엑스포는 지난 17일 건축가 세계적인 재일 한국인 건축가故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을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로서 명예를 회복시키고 12년간 이어져 온 긴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현판식을 개최했다.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 지사는 이날 “그동안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이해부족에 대해 반성한다. 이번 행사는 경주타워가 세계적인 건축가(유동룡 선생)의 작품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며 “이 명품 건물이 세계적인 건축물임을 알리면서 (경주의) 자원도 되고,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현판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판식을 개최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경주타워와 건축가 유동룡 제막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에서 네번째), 유이화 ITM 건축사무소 소장(오른쪽에서 네번째), 주낙영 경주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 /경주엑스포

이 지사는 “지난해 도지사가 된 뒤에 경주타워와 관련된 사연과 유족들의 불만을 듣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우리 잘못이다. 사과를 드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현판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주타워 현판식은 정부·공공기관이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최초로 한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우리나라 풍토가 잘못 형성됐었다”고 반성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에 공공건축물과 관련해 이런 일이 있었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주타워 현판식을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

해)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총괄건축가와 함께 건물 하나하나를 명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 자체로 관광자원이 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작업을 하는 중이다. 현판식도 그 일환 중 하나”라며 경주를 비롯해 경상북도를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지사는 현판식이 끝난 후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 건축사무소 소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경주(경북)=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경주 근처 오기 싫었지만 아버지 명예 찾게 돼 기뻐”

### 故 유동룡 선생 장녀

엑스포의 새로운 현판 제작 협의에 성명표시 소송 취하하고 마음 돌려

“사실 경주 근처에도 오고 싶지 않습니다”故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의 장녀 유이화 ITM 건축사무소 소장이 경주타워에 올라 처음 건넨 말이다. 경주타워 아래 펼쳐진 경주 전망을 바라보던 유 소장은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도 이렇게 일을 잘 해결하고 오니 좋네요”라며 미소지었다.

지난해 유동룡 선생의 일대기와 건축철학을 다룬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가 개봉하면서 경주타워 표지석이 화제가 됐다. 5년간 계속된 법정공방 끝에 서울 고등법원의 선고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저작권자가 유동룡(이타미 준)임을 명시한 표지석이 지난 2012년 설치됐다. 하지만 경주타워 우측 바닥 구석에 위치한 표지석이 눈에 잘 띄지 않는데다 표시 문구의 도색까지 벗겨져 논란이 됐다.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타워의 지적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일련의 내용을 보고받고 원 디자인에 대한 인정과 적극적인 수정조치, 저작권자인 유동룡 선생의 명예회복 등을 지시했다. 문화엑스포측에서 유동룡 선생의 유가족에게 연락을 시작한 지난해 9월 유가족은 이미 ‘성명표시’ 재설치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철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엑스포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이 현판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경주엑스포

측은 바닥에 설치돼있던 표지석을 곧바로 철거하고 유동룡 선생의 유가족과 새로운 현판 제작에 따른 내용 및 디자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러한 노력에 유동룡 선생의 유가족은 ‘성명표시’ 재설치 소송을 2019년 10월 취하했다.

유이화 소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같은 기쁜 날이 있으려고 그동안 긴 싸움을 했나 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저희 아버지 유동룡 건축가는 ‘지역의 정통성과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현재 문화의 흐름과 시간성을 담아내는 그런 열매로서의 건축을 해야 한다’고 자신의 철학을 늘 말씀하셨다”며 “비록 원안 그대로 완공이 됐다면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의 경주탑이 됐을 거라 확신을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그래도 아버지의 건축철학만큼은 경주탑을 통해서 전달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 인터뷰 |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 정다운 감독

# “분노 누르며 촬영... 힘 보탠 것 같아 영광”

“당시엔 정말 터져 나오는 화를 억누르며 촬영했다. 그러나 오늘(경주타워 현판식)은 경주만의 축제일이 아닌 문화예술인에게 상징적인, 행복한 날이다”

지난 17일 경주엑스포에서 열린 경주타워 현판식에 ‘이타미 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 감독이 참석, 현판식이 열리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을 표현했다.

지난해 개봉한 정다운 감독 작 ‘이타미 준의 바다’는 세계적인 재일 한국인 건축가故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의 일대기와 건축철학을 다뤘다. 극장 관객 2만 3000명을 동원하며 국내 독립영화로서는 흥행에 성공, 20회 전주국제영화제, 여성영화인상다큐멘터리 상을 비롯해 수차례의 영화제 상을 받았다. 해당 영화가 이슈가 되면서 유동룡 선생과 경주타워 간의 저작권 분쟁도 함께 관심받았고, 경주엑스포 측에서 유동룡 선생 유족에게 먼저 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정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이타미 준과 경주타워 이야기를 이슈화시켰는데, 이번 현판식이 열리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것 같아 영광”이라며 “평판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속상했다. 돈을 갈끔하게 처리했지만, 사실은 속상해하면서 촬영했다.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기에 감정을 내리누르며 촬영했다. 그런 고생의 결과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밝혔다.

‘영화를 제작하면서 변화할 거라 믿



(왼쪽부터) 김종신, 정다운 감독 부부.

/조효정 기자

### 故유동룡 일대기·건축철학 다뤄 국제영화제서 수상 등 흥행 성공

### ‘할 수 있구나’ 문화의 힘 느껴 문화예술인에게 상징적 의미

았냐’는 질문에 정 감독은 “바뀔 거란 기대는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바로 바뀔 줄은 몰랐다”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그는 “영화를 지난해(2019년)에 만들었는데, 영화 상영이 두 달 간 진행됐는데, 그 사이에 명판 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 ‘할 수 있구나’를 떠올리며 문화의 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감독은 “이번 현판식은 유동룡 선생님은 세계적인 거장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선생님께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후배 건축가들에게 좋은 본보기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다. 결론이 잘 나면 후배 건축가들에게 힘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경주타워 현판식이 건축가를 비롯한 문화예술인에게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사과는 정부·공공기관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사과한 첫 번째 사례다.

마지막으로 정 감독은 “현판식 이후로도 유동룡 선생님과 관련한 영상을 계속 제작하겠다. 유동룡 선생님은 자연과 건축과 사람의 관계를 따뜻하게 품고 온 철학을 가진 건축가였다. 앞으로의 목표는 그의 철학을 담아가며 감독관도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경주타워가 이타미 준의 또 하나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며 많은 분이 경주엑스포와 경주타워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효정 기자